



죽음이 주는 한줄기 빛



얼마 전 페이스북 친구 한 명을 조용히 삭제했다. 언제 친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최근 들어 자꾸 그녀의 포스팅이 나에게 노출되었고 그녀가 올리는 사진들은 하나같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불편하다 못해 괴롭기까지 했고 결국은 그녀를 언팔로우할 수밖에 없었다. 직업이 장례지도사(장례식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인 그녀는 매일같이 장례식장 풍경과 검은 상복차림의 유족들을 포스팅했다. 그녀는 존엄한 죽음을 안내하는 본인의 일상을 공유한 것뿐이고 이는 SNS에 개인 일상, 직업, 취미 등을 포스트 하는 어느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지만 분명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

죽음은 무겁다. 세상 그 어떤 절망의 나락도 죽음만큼 무겁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 그 단어가 주는 감정은 온통 부정적이다. 죽음은 곧 삶의 유한성,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고 이는 절망, 두려움, 공포, 고통, 좌절, 막연함, 무력함으로 다가온다. 적어도 내가 경험한 내 아들의 죽음은 그러했다.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가 올리는 장례식 사진 속에 상복을 입은 타인은 어느새 내가 되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죽음을 경험하고 또한 한쪽은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테지만 죽음을 주제로 대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죽음을 화두로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종종 나처럼 자식 잃은 부모들과 소통하며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모두가 회피하고 싶은 그 무거운 죽음이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맞이하는 일상이고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시작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귀한 아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부터 시작된다. 그다음은 아이의 죽음으로 내가 느끼는 슬픔과 절망에 대해서. 그리고는 남은 생애 두려움과 막막함을 함께 공유하고 고민한다. 같은 슬픔을 지닌 사람들이 마음으로 함께 울고 서로를 안아주는 것만으로 큰 위안이 되지만 우리는 온통 부정적인 것 투성이인 죽음 속에서 애써 한줄기 빛을 찾아내기도 한다.

아마 억지로라도 그 유일한 빛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식의 죽음을 통해 찾게 된 그 빛이라 함은 죽음은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생에 끝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 삶이 귀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된다는 것이다. 나 역시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없게도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별 생각 없이 튀어나왔을 인사, 때때 맞이했을 생일, 가족이 둘러앉아 나누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반찬투정과 다툼이 난무하는 식사시간, 한 번은 겪어야 한다는 중2병과 사춘기 등등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응당 누렸을 모든 것들이 내게는 꿈에서나 그려볼 수 있는 것들이 되어버렸다.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 철학자로 불리는 쉐리 케이건 교수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삶

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발전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죽음이란 종말이 아닌 삶이 의미를 갖도록 완성시켜 주는 현상이다.”

죽음을 삶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고 의연해질 수 있을까? 지금까지도 그렇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자신은 없다. 그저 죽음의 그 아득함 속에서 한줄기 빛을 따라갈 뿐이다. 그리고 생각한다. 완벽한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지만 완벽한 행복이 없듯이 완벽한 불행도 없다. 내 인생의 즐겁고 행복한 영광의 순간에도 목놓아 부르고픈 한 사람이 있어 애달프겠지만, 자식의 죽음은 살아가는 내내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일 테지만 그렇다고 나의 매 순간이 절망이고 남은 내 생이 고통뿐일 리 없다. 나는 배움을 하다 말고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레고 피스를 발견하고는 주저앉아 흐느끼다가 이내 일어나서 청소를 마칠 것이다. SNS에 올라온 우스운 영상을 보며 킁킁거리다가도 고등학생이 된 아들 친구의 늙은 사진을 보며 그리움에 눈시울이 붉어질 것이다. 어느 날은 삶이 길고 고단할 테고 또 어느 날은 세월이 쏠살같다며 아쉬워할 것이다. 그렇게 빛을 따라갈 뿐이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 약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아이비만의 노하우를 경험 하세요! 실적이 증명합니다.

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 01 무료 인스펙션 Free Inspection
- 02 무료 집수리 Free Handyman Work
- 03 무료 집단장 Free Staging
- 04 무료 감정 Free Appraisal
- 05 무료 보험 Free Home Warranty
- 06 무료 창고 제공 Free Storage
- 07 무료 터마이트 검사 Free Termite Inspection
- 08 후불제 페인트 Paint(pay when close escrow)

(* for regular commission listing only some terms and condition will applied)

시니어 스페셜

은퇴후 여유로운 인생의 최고의 선택!!

새로 나온 리버스 모기지 플랜으로 여유 자금/현금 챙기시고 남은 기간 집페이먼트 없이 다운 사이즈 하세요~ 지금 상담 하세요!!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일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949.501.8555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